

Healing III.

아픈 사람에게 사역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세요.

1.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분리된 간극’ 때문이다. 에베소서 1: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이신 신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존재’이며, 바로 그 분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존재이다.

2.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은 어디인가? 머리가 아니다. 마음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다. 마음은 하늘과 땅의 간극을 좁히는 곳이며 하나되게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난다.

3. 율법과 말씀

(1) 사랑이 없는 율법이 능력이 없는 이유 - 혼에 속한 사람

당시 종교인들의 삶을 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던 자들이었으나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무엇일까? 마음이 없는 율법의 문제였다. 신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다. 마음이 아닌 머리로 율법을 알고 있던 그들은, 판단과 정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을 ‘혼에 속한 사람’이라 한다. ‘포세트’주석서에 따르면 마음은 죽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을 소개한다.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지혜롭고 독자적인 교리를 가진, 즉 더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독립하여 오만하다” 라고 쓰고 있다. 이런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더 거룩한 것’ 처럼 ‘자신’을 분리시킨다.

하나님을 알지만 ‘혼(지,정,의)’ 이 먼저 작동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분리시킨다. 더 거룩한 자신의 ‘의’ (자아성찰적 기독교)가 기준이 되었던 신앙은 하늘과 땅의 간극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죄로 분리된 하늘과 땅의 간극을 자신의 ‘의’로 연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적 신앙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2) 마음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14]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당시 종교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요한복음 1: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되어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지켰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되어있다. 그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닌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분리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다. 성육신이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셨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피 우셨다. 무너질 성전을 보며 우셨다. 배고픈 군중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 당신의 사역을 하시다가도, 애타게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면 가던 길을 멈추시며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다.

(3) 십자가 - 인간의 고통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경험하신, 죄악으로 고통당하신 인간의 마음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을 온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머리로 아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셨다.

[이사야 53:3-7]

- 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 7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지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으로 예언되어 있다. 말씀이신 예수는 인간의 ‘멸시, 버림받음,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채찍, 징계, 죄악, 굴욕, 고문’을 당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이신 예수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만 인간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기셨다. 그래서 모든 능력이 십자가 위에 있다.

4. 종교적, 율법적 신앙과 진실한 신앙의 분별의 기준

종교적, 율법적 신앙과 진실한 신앙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십자가는 악세서리, 성경공부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은 지식 습득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이 경작된다’. 그 마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5. 십자가의 능력이란?

예수의 죽음과 보혈이 내 마음안에 저미도록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예수의 마음을 아는데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필수적이다.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정복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모른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시를 건설해서 문명으로 정복하고 싶어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안에 있는 존재적 비밀은 모른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진짜 마음을 배우고, 나의 진짜 실체를 보게될 것이다

6. 베드로가 손을 잡아 터치한 치유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친다. 그런데 베드로의 치유사역 속에 눈여겨 볼 장면이 있다. 나사렛 예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한 후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기록한다.

[사도행전 3: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여 살아간 환자의 손을 실제로 ‘터치’했다. 베드로가 잡았던 손을 통해 그는 무엇을 느꼈겠는가? 그 행려자의 손이 부드러운 손, 향기나는 손이었겠는가? 행려자의 손을 직접 잡아보지 않았으나 느껴진다. 그 거친, 도움이 필요한 손의 감각이 느껴진다.

손을 잡는 순간,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기록한다. 성경은 ‘터치’하는 것이다. 마음은 분리가 아니라 ‘터치’이다. 느껴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 오늘 내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다. 아셨다. 경험하셨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아가라. 손을 잡아주면 된다.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임을 기억하라.